

Question 33

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적 항공기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?

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중전에 있어서 군사력의 우위는 전쟁목표의 달성과 직결되고 있습니다. 특히 전쟁의 승패는 초전 제공권 장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. 따라서 적 항공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경우 그물망 같은 방어막을 형성하여 요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적 항공기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, 바로 지대공(地對空) 미사일입니다.

영토 침범 전 격추하는 지대공 미사일

지대공 미사일은 지상의 기지로부터 발사하여 비행 중인 항공기나 미사일을 격추하는 미사일을 말합니다. 우리의 감시 레이더망에 적 항공기나 미사일이 탐지 및 식별되는 경우, 영토를 침범하기 전에 즉각 격추시키는 역할을 하지요. 현재 공군에서는 호크, 패트리어트, 미스트랄, 신궁 등 다양한 지대공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으며,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965년부터 매년 '유도탄 사격대회'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

중거리 지대공
미사일 '천궁'

국산 중거리 유도무기 ‘천궁’ 개발

요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등 군사적 위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런 때일수록 우리 지대공 미사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요. 최근에는 신무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 작년에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‘천궁’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. 우리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천궁에는 다기능 레이더 등 최신 유도무기 핵심기술이 적용되었는데요. 천궁은 배치, 운용이 간편하고 위치가 적에게 잘 노출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우리 군의 방공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



천궁 미사일 발사장면

